지역타파 외치는 '朴의 남자' vs 권토중래 꿈꾸는 '盧의 남자'

<이정현> <서갑원>

7·30 재보선 누가 뛰나 순천·곡성

이정현, 朴대통령 복심…野텃밭 반란 도모

서갑원, 친노 직계 "불통정권 심판 하겠다"

이성수, 지지층 다져 진보당 지역구 지키기

구희승, 새정치 경선과정 탈당 무소속 출마

김동철, 광양만권 통합 등 주요 공약 제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순천과 곡성지역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왕의 남자'로 불리는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 무소속 구희승·김동철 후보 등이 등록을 마치면서 '5파전'이 됐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며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의 '진검 승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를 내던지고 고향(곡성)으로 내려와 출사표를 던진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안방이자, 야권연대 지역이었던 광주 서구(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기도 했다. 하지만, 39.7%의 득표율을 올리며 야권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서 노 전 대통령 의전팀장을 거쳐 청와대 의전·정무1비서관을 지낸 이른바 '친노'(친노무현) 직계다.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있지만,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것이 흠이다.

서 후보는 이 후보가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능'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 후보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무능력, 무책임, 불통정권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바닥민심을 훑고 있다.

여기에 순천·곡성지역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합진보당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산단을 중심으로 한 고정 지지층을 바탕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어 최소한 두 자릿 수 이상의 득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전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긴 했지만, 12.5%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했다. 따라서 인지도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지역구를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사활을 걸고 있어 향후 선거일까지 진보당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무소속 구희승 후보는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과정에서 전화착신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양과에 합격, 중앙부처와 법원 판사를 지낸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구 후보는 지난 2011년 4·27 보궐선거에도 민주당 경선에 나섰었다.

하지만, 순천이 야권연대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석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구 후보는 ▲서면공단 해룡산단으로 이전 ▲해룡~도사 간 제2순환도로 건설 ▲율촌2산단 조기착공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30년 교직생활을 해온 무소속 김동철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뒤늦게 전남도 교육감 후보로 나서 14.5%의 득표율을 올렸기도 했다. 김 후보는 광양만권 행정적 통합, 순천 전남 동부지역 거점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곡성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	이정현(55)	서갑원(52)	이성수(45)	김동철(60)	구희승(51)
주요 경력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전)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 17·18대 국회의원	·전) 6·4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 ·전) 민주노총 총연맹 기획실장	·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전) 전남도교육감 후보	·전) 산업자원부 서기관(29회 행정고시 합격) ·전) 광주지법 판사(40회 사법고시 합격)

이 후보는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광주·전남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얻은 점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의 당선 여부만큼이나 득표율도 주목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여론이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 순천대 의대 유치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임자를 내세우며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순천이 고향인 서 후보는 순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2년 대선에

416개 상자에 담은 세월호 특별법 서명부 1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공개한 '4·16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 350만1266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 유가족은 4월16일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모두 416개 상자에 서명부를 담았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3억5000만원, 전남교육감 10억2000만원

지방선거 후보자당 선거비용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비해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광주시장 선거에 비해 전남지사 선거 비용이 3배 가까이 더 많았고, 교육감도 광주에 비해 전남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14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비용으로 총 24억8653만원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으로는 평균 3억5521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으로 총 23억8114만원을 지출했고,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억76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시장선거 3억4960만 원, 교육감선거 5억 9214만원)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전남도 선관위도 이날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24억64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억21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총 30억6600여만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됐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2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지사선거 6억4300여만원, 교육감선거 6억6900여만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수단체, 권은희 후보 위증 혐의 고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14일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권 전 과장은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권 전 과장의 법정 진술이 전혀 근거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권 전 과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1년 반 동안 국민 분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산구선관위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수완호수근린공원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7·30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송환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통합진보당 장원섭, 정의당 문정은, 무소속 양정석 후보 5명이 참여한다. 이들 후보자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를 서명·교환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